

# 광주·전남 교육청 재정 결손액 1조 육박...재정 운용 빨간불

### 정부 긴축재정에 재정교부금 광주 3385억·전남 6239억 감액 시·도 교육청 “재정 결손 지속뎌 장기적으로 교육현장 큰 타격”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광주·전남 교육청의 재정 결손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33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5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 큰 폭의 '세수 핑크'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

피하게 됐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교육청이 교부금 결손액이 2조3885억원에 달했고, 이어 서울시 교육청이 9131억원, 경남 8626억원, 경북 7405억원, 전남 6239억원에 달했다. 광주시교육청도 338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각 교육청의 예상재정결손액을 학생 1인당 감소로 환산할 경우는 강원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학생 1인당 3300만원이 감소했고, 뒤를 이어 전남교육청이 3200만원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지

난해 기준)이 6302억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도 4481억원 모자랐다.

경북(4034억원), 전남(2011억원), 울산(1142억원), 제주(1207억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결국 안정화기금으로도 재정결손을 메우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시설환경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교부금 감소에 따른 부족분은 기금적립금 등을 활용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재정 결손액이 누적되면 교육현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도 정부의 긴축재정으

로 3000억원 가량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어렵게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에서 비슷한 규모가 예상돼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1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 2024년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을 올해 보다 약 6.9조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로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저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율성 논쟁 중단하라 16일 오전 '문화와 역사를 지키는 시민모임'이 광주시 남구 정율성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정율성 사업 이념 논쟁 중단과 지방정부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일제 군 시설 추정' 광주 지하동굴 부실 관리

### 침수돼 토사 쌓이고 벽면 부식...보존 대책 시급

일제강점기 광주지역에서 비행장 배후 군사시설로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장마에 침수돼 시설 내부에 토사가 쌓이고 벽면 부식까지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일제강점기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 역사공원 제 1주차장 부지에 있는 일제 동굴 한 곳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동굴은 지난 2021년 5월 옛505보안대를 5·18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이 상무지구 비행장을 운영하면서 만든 여러 동굴 중 하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민모임은 “발견 이후 몇 차례 현장을 방문했

지만 심각한 침수 및 토사 유입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로 밀려들어온 토사가 쌓여 바닥의 높낮이가 달라져 있었다”면서 “동굴 내부는 질척거려 발을 내딛기조차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또 “동굴 내부에 습기가 가득해 벽과 천정에 이슬이 맺히는 등 결로현상도 심각했다”며 “부식 등 현상들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보존·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일제 군 시설물 관련 학술조사 추진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내년에 학술 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지만 시설물 보존 및 관리 방안은 계획에 포함돼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5·18 가해자 증언대 세울 청문회 결국 무산

### 5·18조사위 최종 결정...지역민 '34년만의 청문회' 기대 와르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4년여 동안 조사위의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문회를 개최해 5·18의 진실을 밝히기를 기원해 왔던 지역민의 염원을 버렸다의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조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위는 이날 전위원회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조사위 활동 종료 시한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와 청문회를 준비할 기간이 부족해다 직권·신청조사 과제를 마무리하고 심의·의결하는 것만

으로도 벅차 현실적으로 청문회를 열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권조사 심의·의결도 전체 21건 중 1건밖에 안 돼 있어 청문회에서 다룰 내용이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

조사위의 최종 결론에 따라 생존 5·18 가해자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는 청문회가 무산됐다. 이 청문회는 1988-1989년 5공화국·광주청문회 이후 34년 만에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일각에서는 조사위가 청문회를 차일피일 미루다 스스로 무산 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4년여 동안의 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거론된다.

청문회는 당초 조사위 활동 1차년도인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 매년 수차례씩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후 계획을 전면 수정해 아예 4차년도에 청문회 일정을 몰아넣기로 했다. 기존에 알려진 사안보다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뜻에서였다.

하지만 조사위는 현재까지도 청문회와 관련한 전위원회 의결을 거처하는 커널 수개월동안 청문소위원회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일보 8월 22일자 6면>

지난 9월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원회 내부에서 10월께 청문회를 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5·18 출동 장갑차 5·18교육관 전시 '가닥'

### 12월께... 교육·체험프로그램 연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이 시위 진압에 사용했던 동일 기종의 장갑차와 헬기 등 군 장비가 오는 12월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 교육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5·18 출동기종 이전 및 전시 사업' 대상지를 5·18자유공원에서 5·18교육관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시될 군 장비는 5·18당시 투입됐던 것과 동일한 경장갑차, 지휘용 장갑차, M113장갑차, M48전차, 500MD 군용헬기 등 총 5대다.

당초 이들 장비는 5·18자유공원에 전시될 예정이었으나, "5·18 자유공원에는 군 장비들이 출동한 적이 없다"는 등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검토를 거쳐 광주시는 5·18자유공원과 비

슷한 규모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기 좋은 5·18교육관에 군 장비를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5·18교육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군 장비를 설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5·18기록관 수장고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광주시 설명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총 예산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6월 24일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폐기 예정인 군 장비를 대여해 광주로 이송했다.

국방부로부터 장비를 대여한 기한은 2028년 4월 30일까지지만, 광주시는 이후로도 무상으로 대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